

지역사랑 기금으로 소외이웃에 더 가까이

하이트진로, 공동모금회에 2억원 기부 결식아동 등 사용...기업 사회공헌 앞장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백관홍 호남권역 본부장(왼쪽)과 성동욱 광주지점장(오른쪽)이 7차 '광주전남사랑기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이남수)가 지역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광주전남사랑기금 2억원 조성' 등 기업의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광주전남에서 참이슬 소주가 연말까지 총 138만5112박스가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만 3000여 박스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광주전남 시장 점유율을 1.3% 늘려 19%를 차지 할 것으로 5일 밝혔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수출에서 호조를 보여 올 3·4분기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억715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인 1억708만 달러를 이미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5년 수출액 2억달러를 넘겨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은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 ▲진로 참이슬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전남 가꾸기 사업 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화 시사회 진행 등 '참이슬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 1월 광주전남사랑기금 2억원 조성 협약체결 후 2010년부터 7차

에 걸쳐 조성된 성금 1억2391만440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참이슬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시 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7차에 걸쳐 기탁된 1억2391만4400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출범한 '진로 참이슬 봉사단'은, 지역사회 공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능회복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 주요행사 및 각종축제' 홍보를 위해 매년 참이슬 보조상표에 홍보문구를 표기한 제품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 지역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광주전남 가꾸기 사업과 각 구청에 '청소년 인제 육성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참이슬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동욱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장은 "지역민에게 다가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대기업 대출연체 5년만에 최고

1.36%...가계, 0.75%

은행들의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4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0월말 국내 은행의 대기업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1.36%로 전월말 대비 0.86%포인트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박건조업의 업황부진과 분기말 결산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선박건조업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7.47%포인트나 급증한 10.8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연체율은 1.83%로 전월 말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75%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증가폭은 0.04%포인트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3%포인트 오른 0.66%,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 오른 0.93%를 기록했다. 각 부문별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0.24%포인트 오른 1.28%를 기록했다.

금융원은 유력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선업과 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발목까지 따뜻하게...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 패션스트리트 폴로슈즈코너에서 발목까지 따뜻한 부츠를 선보였다. 아동용은 78,000원, 성인 8만3000원.

혜택 많은 체크카드 이용 늘어

9월 사용액 50조원...전년보다 38% 급증

국내 체크카드 시장이 꾸준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체크카드 사용액이 50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36조3000억원)에 비해 38.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의 신용판매 이용실적(335조2000억원)은 1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체크카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체크카드의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09년엔 9.9%로 한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말 12.5%를 거쳐 지난 9월말에는 15.0%까지 뛰어올랐다.

체크카드의 인기는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비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게 금융원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카드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25%인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수는 얼마 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9월말에는 9천35만개로 6월말(8936만개)에 비해 1.1% 느는데 그쳤다.

무실적 휴면카드의 3천218만개로 지난 6월말(3295만개)에 비해 77만개 줄었다. 전입카드사의 연체율은 1.91%로 6월말(1.74%)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9월까지 전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185억원으로 전년동기(1조3904억원)보다 3718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사용해도 확 줄인다

금융위, 소득·신용도 따라 발급 요건 강화

고객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용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소득과 재산, 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 사용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날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카드사들이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

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 중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 무자극 고객에게 카드 발급하거나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킨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에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

(1억2000만장)의 27%(3295만장)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휴면카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카드 해지 과정을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외상구매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은행계좌 잔액으로 바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려야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51조원으로 신용카드의 8분의 1 수준이다.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30%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1,920선 탈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920선을 재탈환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유럽 재정통합 방안과 관련해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덕택이다.

5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86%포인트(0.36%) 오른 1,922.9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12.42포인트(0.65%) 오른 1,928.46으로 출발했으나 지난주 급등에 따른 경계심이 작용해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제공 합의로 지난주 8% 넘게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지수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유럽 재정통합 방안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었다.

외국인은 652억원의 순매도하며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투자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사자' 우위를 보이며 95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1899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뒤늦게 매수행진에 가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49포인트(1.50%) 오른 505.82로 마감했다.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안철수 연구소는 상한가에 올랐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에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 기준청구요금(사용인원별 kWh/월) | 설치시 청구요금 | 절감 요금 |
|---------------------|-----------|------------|
| 8만원 (약 415kWh)일 때 | 약 1,800원 | 약 78,200원 |
| 10만원 (약 460kWh)일 때 | 약 5,600원 | 약 94,400원 |
| 12만원 (약 500kWh)일 때 | 약 8,900원 | 약 11,100원 |
| 15만원 (약 540kWh)일 때 | 약 16,500원 | 약 133,500원 |
| 20만원 (약 610kWh)일 때 | 약 30,600원 | 약 169,400원 |
| 25만원 (약 680kWh)일 때 | 약 48,000원 | 약 202,000원 |
| 30만원 (약 740kWh)일 때 | 약 72,000원 | 약 228,000원 |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항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 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0 이상 보증을 원목집대 및 협탁을 사용함으로써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거릴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